

# 쌍용건설, 대전 주택시장 재진출... 회덕지구주택 수주?

✎ 이경호 기자 | ④ 승인 2021.05.25 16:15



(G밸리뉴스) 이경호 기자 = 쌍용건설(대표이사 회장 김석준)은 지난 1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전시 회덕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수주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. 공사비는 약 1,400억원 규모다.

이번 수주를 계기로 쌍용건설은 2008년 9월 대전 태평동 쌍용예가 준공 이후 13년만에 대전 주택시장에 재진출하게 됐다.

토지소유권을 100% 확보한 대전 읍내동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향후 지하 3층~지상 25층 11개동, 총 745가구의 '더 플래티넘' 아파트로 탈바꿈한다. 오는 10월 착공, 연말 일반분양을 거쳐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며, 조합원 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237가구다.



# [로즈데일리] 쌍용건설, 대전 읍내동 회덕지역 주택조합 745세대 수주...'24년 준공

✎ 김동국 기자 | ⓒ 승인 2021.05.25 11:11

약1,400억 규모 회덕지주택 수주 ... 2008년 태평동 쌍용예가 준공 이후 13년만

토지소유권 100%확보 사업계획승인 완료 ... 조합과 원활한 소통, PM업무지원 펼쳐

대전서 '더 플래티넘' 첫 공급 이미지 제고 ... 주택명가 위상 높여 다양한 상품 공략

올해 리모델링 등 전략적으로 전국 민간주택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쌍용건설이 13년만에 대전 주택시장 재진출한다.

쌍용건설은 지난 5월 1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1-18번지 대전 읍내동 회덕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수주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. 공사비는 약 1,400억원 규모다.





## 쌍용건설, 대전 주택시장 13년 만에 재진출...1400억 규모 대전 회덕지구주택 수주

토지소유권 100% 확보 및 사업계획승인 완료

안정호 기자 vividocu@inthenews.co.kr

등록 2021.05.25 13:47:47



▲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회덕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투시도. 이미지 | 쌍용건설

인더뉴스 안정호 기자 | 쌍용건설(대표 김석준)은 지난 1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1-18번지 대전 읍내동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수주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.

해당 공사비는 약 1400억원 규모입니다. 이번 수주를 계기로 쌍용건설은 2008년 9월 대전 태평동 쌍용예가 준공 이후 13년 만에 대전 주택시장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.